

한국 조선 3사, 고부가가치선 수주액 급증



▲ 삼성중공업의 거제조선소 모습. 사진=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한국 조선 3사가 최근 잇따라 대규모 고부가가치선 계약을 따내면서 올 1분기 수주액이 지난해 연간 수주액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물동량이 증가하고 갈수록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따라 노후 선박 교체시기가 앞당겨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조선3사의 올해 현재까지 수주액은 118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 연간 총 수주액(202억8,000만 달러)의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부문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1분기에만 49억8,000만 달러를 수주해 지난해 연간 총 수주액(91억6,000만 달러)의 54%를 달성했다. 삼성중공업은 현재까지 50억5,000만 달러를 수주, 지난해 전체 수주액(54억8,000만 달러)에 육박했다. 대우조선해양도 1분기에 17억9,000만 달러를 수주하며 지난해 연간 수주액(56억4,000만 달러) 대비 32%를 기록하는 등 회복세를 보였다.

조선3사의 호실적은 전반적으로 수주량이 늘기도 했지만 선가가 높은 고부가가치선을 대량 수주한 영향이 크다. 실제 지난 1월 국내 조선업체가 글로벌 수주실적 1위를 기록했을 때도 수주량 증가폭보다 수주 금액 증가폭이 더 컸다.

한국 조선사들은 최근 물동량 증가와 선가 상승세, 국제해사기구(IMO)의 배기가스 규제 등이 맞물리면서 선주들이 노후 선박 교체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안으로 한국 조선사들의 주력 선종이자 고부가가치선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대규모 발주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30대 미혼남녀 절반 이상 썬거루족

청년 고용불황과 비혼·만혼이 심화하면서 30대 미혼남녀 절반 이상이 이른바 '썬거루족'으로 불리는 부모 동거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 '한국경제'가 통계개발원이 이날 펴낸 'KOSTAT 통계플러스 2021년 봄호'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30대 미혼 인구 중 부모와 동거하는 사람의 비율은 54.8%로 집계됐다.

연령집단별로 보면 30~34세 중 부모와 동거하는 사람이 57.4%, 35~39세는 50.3%로 각각 집계됐다. 40~44세의 경우 미혼 인구의 44.1%가 여전히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함께 사는 미혼 인구의 경우 42.1%가 비취업 상태로 집계됐다. 취업자 비율은 57.9%에 그쳐 경제적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꾸려가는 청년 1인 가구는 취업자 비율이 74.6%로 부모 동거 가구보다 16.7%포인트 높았다.

주거 형태별로 보면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인구 가



▲ 30대 미혼 인구 중 절반 이상이 부모와 함께 산다. 사진=shutterstock

운데 자가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70.7%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월세(14.8%), 전세(12.1%) 등 순이었다. 반면 미혼 1인 가구는 59.3%가 월세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는 11.6%에 불과했다.

또 결혼 제약 요인으로는 미혼남녀 모두 '본인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남성 18.4% 대 여성 23.4%)를 주된 이유로 꼽았다. 주로 남성이 '소득이 적어서'(15% 대 2.6%), '비용 부담이 커서'(6.0% 대 2.8%) 등 경제적인 사유를 꼽았다.

20대 직장인 10명 중 7명 "1년 내 첫 이직"

직장인들이 첫 이직을 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취업 후 1년 이내에 첫 이직을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잡코리아'는 전날 이직 경험이 있는 남녀 직장인 1024명을 대상으로 첫 이직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이 첫 이직을 가장 많이 한 시기는 입사 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 이직을 한 시기가 언제냐는 질문에 '입사 후 1년 이상 2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직장인이 20.5%로 가장 많았으며 '입사 후 6개월 이상 1년 미만'(19.9%), '입사 후 2년 이상 3년 미만'(16.3%)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입사 후 6개월 미만에 처음으로 이직을 했다는 응답도 21.7%를 차지해 10명 중 4명 이상의 직장인이 입사 후 1년 이내에 첫 이직을 경험했다.

특히 첫 이직 시기는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었다. 50대 이상 직장인들의 경우 첫 이직 시기가 '입사 후 5년 이후'라는 응답이 37.5%로 가장 많았지만 40대는 '입사 후 2~3년 미만'이 2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직장인들의 첫 이직 시기는 '입사 후 1년~2년 미만'(25.9%)이 1위를 차지하고 20대 직장인들은 '입사 후 6개월에서 1년 미만' 기간에 첫 이직 경험률이 29.0%로 가장 많았다. 직장인들의 첫 이직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20대의 경우에는 첫 이직 시기에 대해 '입사 후 3개월 미만'(18.0%), '입사 후 3개월~6개월 미만'(21.2%), '입사 후 6개월~1년 미만'(29.0%) 등 입사 후 1년 미만에 이직했다고 답한 경우가 68.3%를 차지했다.

첫 이직을 하게 된 이유(복수응답)로는 ●업무과다 및 야근으로 개인생활을 누리기가 힘들어서(39.2%) ● 낮은 연봉(33.4%) ● 회사의 비전 및 미래에 대한 불안(27.3%) ● 상사 및 동료와의 불화(16.9%) ● 커리어 관리를 위해서(12.3%) 등을 꼽았다.

100% HAND WASH TRUCK / RV / CAR

왁스 · 스팀 세차 · 인테리어 청소

종목

TRUCK, RV, BUS, OVERSIZE, Fork LIFT, AUTO CARRIER, BOAT, ETC

서비스

WASH, STEAM, POLISH, WAX, INTERIOR DETAIL

특별 서비스

D.O.T. 서비스, PARKING SPOT(파킹장 임대)
 AUTO DEALER(자동차 판매상) 문의환영
 TRUCKING(운송 회사) 문의환영

KING TRUCK WASH

OPEN HOUR : MON-SAT 6am - 6pm

562.945.4826

mwleela@hotmail.com
www.kingtruckwash.com

	Whittier Blvd	
605	Sorenson	Santa Fe Springs Rd
Slauson Ave	★	
5	Telegraph Rd	

12500 E. Slauson Ave., G-2,
Santa Fe Springs, CA 90670